

미 정부, 4대 IT공룡 반독점 조사

2000년대 닷컴버블의 잔해 속에서 싹을 틔워 미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둥으로 성장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 정부와 의회의 집중 감시 대상으로 지정됐다.

규제 당국은 과거 산업 초창기에 얼렁뚱땅 넘어갔던 IT 공룡들의 독과점 문제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기업들이 '눈치껏' 유지했던 IT 산업의 질서를 국가 차원에서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일 '파이낸셜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애플을 조사할 예정이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기로 했다.

관계자는 법무부와 FTC의 주요 목표가 각각 구글과 페이스북이었으며 조사 역시 이들 두 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FTC는 이미 구글과 페이스북을 조사하면서 관할권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으며 애플과 아마존에 대한 수사가 해당 협약에 추가된 것인지, 혹은 별도의 협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FTC의 4대 IT 공룡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어느 정도 가시적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최소 1년6개월~2년 기다려야 한다. 법적으로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이 시장을 독점해 경쟁에 심각한 제한을 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면밀히 '반독점'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1~2년 사이에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이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선 4대 공룡에 대한 조사가 정부와 기업들 간 법적 다툼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이 민주당에 너무 치우쳐 있다"며 IT 업계의 정치 성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지난 3월에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이 고객의 사생활을 악용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이들을 해체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파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전날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콘퍼런스 연설에서 "이들(무역) 이슈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며 "미국의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항상 그랬듯 탄탄한 고용시장, 목표치 2% 안팎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갈등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지난 2일 공개된 CBS방송 '식스티미닛(60 Minutes)'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는 좋은 지점에 있고 경제 전망도 양호하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최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히는 미·중 무역전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폭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이 큰 충격에 빠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관심 포인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폭이다. 당장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오는 18~19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관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피아트, 르노 합병 철회

전 세계 자동차업계 판도를 뒤흔들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르노 간 합병이 프랑스 정부와 닷산 반발 등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FCA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르노에 대한 합병 제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FCA 측은 "(합병) 제안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자신을 갖고 있다"면서도 "통합 성공에 필요한 정치적 조건이 현재 프랑스에는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통합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르노 출신 임명 등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르노 대주주인 프랑스 정부 개입이 합병 철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르노와 제휴 중인 닷산·미쓰비시자동차 반발에 따른 프랑스 정부 입장 선화와 이탈리아 정부 개입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FCA의 한 축인 피아트는 이탈리아 기업이다.

사이카와 히로토 닷산 사장은 3일 성명을 통해 "FCA

와 르노 통합이 실현되면 르노의 형태가 크게 변할 것"이라며 "닛산과 르노의 관계를 기본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FCA와 르노가 통합할 경우 닷산까지 통합에 나설 가능성을 염려했던 것이다.

닛산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기존에는 FCA·르노 간 합병에 찬성했던 프랑스 정부도 입장을 바꿨다. 닷산이 르노와의 관계를 재검토해 자국내 공장 축소 등에 나서는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르노에서는 자사 프랑스 공장이 주문 감소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자 닷산 인도공장 물량을 끌어오는 식으로 위기를 넘겨 왔다.

또 닷산이 떨어져 나가면 르노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프랑스 정부 발목을 잡았다. 유럽발 채무위기 충격으로 고전하던 르노는 2014년 이후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닷산 배당금이 차지하고 있다.

또 닷산 판매대수가 르노에 비해 50% 이상 많다.

플러튼 / 라미라다 / 헌팅톤비치 / 부에나파크 / 실비치 / 스텐톤 / 로스알라미토스 / 파운틴벨리 / 사이프레스 / 라팔마 / 브레아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싸고 좋은 매물들을 로즈메리가 찾아드립니다!

가든그로브 (콘도) 방3/화3, 건평 약 1,510sf 2개로 완전분리된 마스터 베드룸 최고의 밝은 유닛 45만 9천	사이프레스 (타운하우스) 방3/화2, 건평 약 1,240sf 매력있는 타운하우스 그라나잇 조리대 좋은학군 49만 9천 9백	스텐톤 (콘도)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SOLD</div> 52만 4천	스텐톤 (콘도) 방1/화1, 건평 약 1,300 단층, 1983년생 게이트이드 저렴한 단지 회비 31만	부에나 파크 방3/ 화2, 건평 1,690sf 새마루바닥 매력있는 단장된 집 59만 9천 9백
라미라다 방3/화2, 건평 약 1,500sf 바이올라 대학 가까운거리 좋은환경 넓은정원,파킹랏 59만 9천 9백	헌팅톤비치 방4/화2, 건평 1,490sf 완전리모델링 도보거리좋은학군 넓은 주차장 74만 9천	애나하임 방3/화2, 건평 약 1,220sf 새지붕, 새카비 편리한 샵핑몰 큰 파킹랏 58만	파운틴 벨리(콘도) 방2/화1, 건평 1880sf 12년된 새콘도 저렴한 관리비 문화시설 완비 38만 9천	테메쿨라 방4/화3, 건평 약 1,600sf 높은 천장 아주 저렴한 관리비 2001년생으로 새집같은 41만 5천

Rosemary Hur
로즈메리 허
 Realtor® | DRE #01967942
714.334.2292
 O.714.537.1111
 realtorrosemary3819@gmail.com

* 팔고 사는 집, 언제나 신중함과 성실, 인내로 모십니다 * 학군 및 용자 상담

8663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